

(주소) 11775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전화) 031-853-9319 (팩스) 031-853-9048

배 포 일	2020. 11. 19.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0. 11. 20.				
제목 : 동두천 순자문화제 개최	1	2	www.ggcf.kr/	부서 : 지역문화팀 담당 : 이재순 담당 전화 : 031-853-9320	

동두천 톱거리마을박물관에서 순자문화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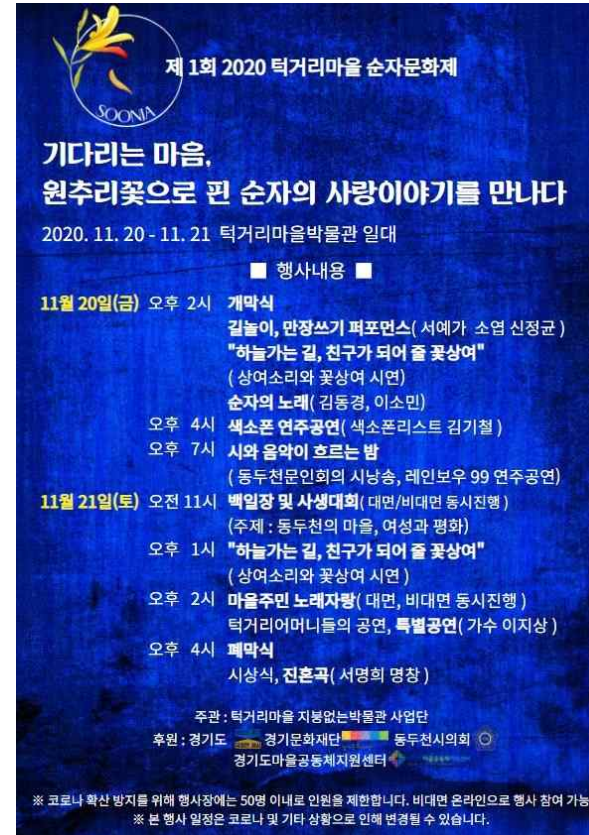
"기다리는 마음, 원추리꽃으로 핀 순자의 사랑이야기를 만나다"

동두천 톱거리마을박물관 일대에서 잊혀져가는 '순자'들을 기억하는 순자문화제를 오는 11월 20일(금)부터 21(토)까지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동두천에서도 변방에 위치한 톱거리마을(행정명 광암동)은 1953년 미군이 주둔하며 형성된 전형적인 기지촌 마을이다. 하지만 2004년 이라크전쟁으로 동두천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병력의 50%가 감소하고, 팽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톱거리마을은 점차 쇠락하였다. 그럼에도 톱거리마을은 60-70년대의 기지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한국 근현대사의 큰 가치를 담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전쟁 후 한국 경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실랑이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빈곤을 해결하고자 기지촌으로 몰려왔다. 특히나 기지촌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빨래와 허드렛일로 가계를 일군 여성, 유바이(You Buy)라 불리며 미군을 상대로 물건을 팔던 여성, 미군의 파트너 역할을 한 위안부 여성 등이다.

동두천 톱거리마을에는 두 명의 '순자'가 있었다. 한 여성은 그를 사랑한 미군이 그녀가 죽자 봉분과 직접 새긴 비석을 세워 그들의 사랑이 영원함을 알린 '순자'였고, 다른 한 여성은 홀로 늙어가며 과거의 기억 속에서 미군의 존재를 지워내려는 '순자'이다. 공교롭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순자를 통해 당시 기지촌에서 살아간 여성들을 재조명하게 된 마을 주민들은 당시 기지촌을 일구며 살았던 여성들이 모두 '순자'였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순자'라는 이름이 한 반도에서 일어난 격변의 역사와 분단, 치열한 경제성장 속에 오늘날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흔적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순자문화제는 이러한 '순자'들을 기억해냄으로써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해내고, LNG복합화력발전소 설치 및 개발 문제 등으로 양분된 톱거리마을의 공동체성과 가치 회복,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11월 20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순자문화제에는 길놀이, 만장쓰기 퍼포먼스, 색소폰 연주공연, 백일장 및 사생대회, 마을주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코로나19로 50인 이내로 제한되며,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 1회 2020 톱거리마을 순자문화제




**기다리는 마음,
원추리꽃으로 핀 순자의 사랑이야기를 만나다**

2020. 11. 20 - 11. 21 톱거리마을박물관 일대

■ 행사내용 ■

11월 20일(금) 오후 2시 개막식
길놀이, 만장쓰기 퍼포먼스(서예가 소엽 신정균)
"하늘가는 길, 친구가 되어 줄 꽃상여"
(상여소리와 꽃상여 시연)
순자의 노래(김동경, 이소민)
오후 4시 색소폰 연주공연(색소폰리스트 김기철)
오후 7시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밤
(동두천문인회의 시낭송, 레인보우 99 연주공연)

11월 21일(토) 오전 11시 백일장 및 사생대회(대면/비대면 동시진행)
(주제: 동두천의 마을, 여성과 평화)
오후 1시 "하늘가는 길, 친구가 되어 줄 꽃상여"
(상여소리와 꽃상여 시연)
오후 2시 마을주민 노래자랑(대면, 비대면 동시진행)
톱거리어머니들의 공연, 특별공연(가수 이지상)
오후 4시 폐막식
시상식, 진혼곡(서명희 명창)

주관 : 톱거리마을 지붕없는박물관 사업단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동두천시의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에는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 참여 가능
※ 본 행사 일정은 코로나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